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약국을 통해 날록손을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조치 발표**

**2017년 8월 9일부터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치료제에 공동부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프로그램**

오피오이드 확산 문제에 대항하는 주정부의 적극적 노력의 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약국을 통해 날록손(Naloxone)을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8월 9일부터,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 등 처방약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최대 40달러의 공동부담 지원금을 받아,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자나 처방약 보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뉴욕주에 등록된 오피오이드 과복용 방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로 날록손(Naloxone)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국 최초의 프로그램은 이 중요한 치료약을 더 많은 분들에게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남용과 싸우는 주정부가 마련한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이는 모두를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건강한 뉴욕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날록손(Naloxone)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치료제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의약품의 비용을 낮추는 것은 2016년 1월부터 날록손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Cuomo 주지사의 이전 [조치](#)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과거, 뉴욕 주민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또는 등록된 오피오이드 과용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날록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9일 현재, 뉴욕 주민은 주 전역 약국 카운터와 www.health.ny.gov/overdose 페이지에서 약값 공동부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약사에게 이 정보를 제시해야만 무료로 또는 본인 부담액을 줄이면서 날록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록손 공동부담 지원 프로그램(Naloxone Co-payment Assistance

Program)은 뉴욕주 오피오이드 과용 방지 프로그램(New York State's Opioid Overdose Prevention Program)의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나 처방약 보장이 없는 사람들은 뉴욕주에 등록된 여러 오피오이드 과복용 방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로 naloxon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전체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주정부 예산을 통해 Cuomo 주지사는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확산과의 싸움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이 유례 없는 지원은 약물 의존 문제에 대응하고 입원 치료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공중의 인식과 교육을 증진하는 예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naloxone

naloxone(Naloxone)은 헤로인, 처방진통제 및 기타 오피오이드로 인한 과다복용의 영향을 해소하는 용도의 처방약입니다. 2014년, 주정부 기관들은 단속반원들에게 naloxone 조제 방법을 교육하는 주 전체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이 시작된 이래, 1만 명이 넘는 단속반원들이 naloxone 조제법 교육을 받았으며 3,091명은 다른 단속반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받았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교육을 받은 단속반원들은 naloxone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이래, 2,036명의 단속반원들이 3,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naloxone을 조제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90%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단속반의 naloxone 교육과 그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aloxone은 오피오이드 과용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도 아래, 뉴욕주는 치료 병상 수 확대에서부터 약물 사용 관련 서비스 이용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의료보험 개혁에 이르기까지 오피오이드 남용 추세를 저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새로운 공동부담 지원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naloxone을 더 많이 공급하여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Arlene González-Sánchez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부담 없는 가격에 naloxone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오피오이드 확산이 우리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 주의 모든 예방, 치료, 회복 사업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 최근의 조치를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다시 한번 뉴욕주를 중독 치료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George Amedore 상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대책위원회(Senate Committee on Alcoholism and Drug Abus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효과적인 약물 과용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주는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확산과의 싸움에서 다시금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장애물을 제거하여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뉴욕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시는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대책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lcoholism and Drug Abus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지역사회는 헤로인과 오피오이드의 확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켜 더 이상의 과다복용 사망을 막아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naloxone을 새로운 저가 또는 무료 공동부담 체제를 통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계획은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인 naloxone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춤으로써, 뉴욕 주민들은 주 전역 모든 곳에서 더욱 수월하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필수적 치료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계속해서 과용 방지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치료 방법을 확대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Kemp Hannon 상원 보건위원회(Senate Health Committe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저는 지역사회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우리 주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이 치료제를 제공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피해교정연합(Harm Reduction Coalition) Sharon Stancliff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쉽게 도울 수 없었던 분들의 naloxone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 가운데는 통증 치료를 받는 환자, 약물치료소 또는 감호소에서 돌아온 가족, 농촌 지역의 위험 노출 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이며 뉴욕주의 공동부담 지원 프로그램은 그 해결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